

기고

‘백암탐방안내소’에서 자연을 누리는 장벽 없는 체험을 시작하세요

안동 순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우리나라 단풍의 제일 명소답게 가을이 깊어짐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 중 백암산의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다. 고즈넉한 백암사와 쌍계루 계곡에 투영되는 오색 단풍이 물들어 가는 아름다움에, 연중 탐방객의 약 40%가 가을에 이곳을 찾는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산을 찾으면 산 아래 아기 단풍 터널에서부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그 정취 속에 더 많은 탐방객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탐방거점시설이 함께한다.

올봄,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최초로 층간 슬로프 이동이 가능한 탐방안내소를 개소했다. 백암탐방안내소는 국립공원을 찾는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자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존이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존재하는 장벽을 허물자는 사회운동으로, 백암탐방안내소의 배리어프리존은 이들이 편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과 심리적인 벽을 제거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백암탐방안내소는 연면적 813㎡, 지상 2층 규모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로,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중 최초로 층간 슬로프 이동이 가능하다. 거동에 제약이 있는 탐방객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모든 층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곳곳에 전시된 보물 같은 콘텐츠 또한 직접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광주 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문화관광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전 컨설팅을 통한 전시시설을 구성하였고,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언어 음성 서비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배리어프리는 이제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립공원이 추구하는 탐방문화도 변화하는 추세이다. 백암탐방안내소는 모든 탐방객에게 제한되는 것이 없는 탐방을 추구하고자 한다.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고령자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며 체험할 수 있다.

“天地不仁(천지불인)”이라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천지자연은 편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연은 모두에게 평등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기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다. 백암탐방안내소는 장벽 없는 탐방서비스 제공으로 자연을 즐기고 체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거점 시설로서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이곳을 찾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풍수학에는 거주인에게 빠르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양택풍수(陽宅風水)와 여러 자손에게 오래 영항 주는 음택풍수(陰宅風水, 묘터)가 있는데 좋은 집터에서 살면 양택의 운을 받아 부귀 성장하고 좋은 묘터에 조상을 안장하면 후손이 발복을 받아 성공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거처를 정하고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풍수지리학에서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문제를 양택풍수라 하며, 집과 건물의 터를 잡는 일이다. 반대로 삶을 끝내고 사후의 거처를 정하는 부분이 음택풍수다. 양택(陽宅)은 산 사람의 거주지이고 음택(陰宅)은 죽은 사람의 안장지(安葬地)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택이나 음택 모두가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며 좋다는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택지(宅地)는 건물이 들어설 터를 말하는데 도시나 촌락의 보국(保局)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중에서도 택지로 알맞은 곳이 있고, 부적합한 곳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보국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안쪽의 공간을 말한다. 좋은 택지는 보국 중심지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음택은 다른 측면을 살펴야 한다. 음택은 양택과 마찬가지로 땅의 지기를 통해 발복의 기운을 받는다. 다만 음택은 발복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 자손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

그러나 양택은 그 반대다. 좋은 양택에서 살면 그 집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사람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게 매우 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좋은 양택을 선택해 계속

살지 않아도 가끔 드나들면 양택의 기운을 받는다고 한다. 한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음택을 선호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양택을 선호해 좋은 집터를 물색해서 집을 짓고 살았다.

음택에서 명당이라는 곳의 여건은 북면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의 여건이 갖추어진 것이며 그곳의 땅속에는 명당 토가 있는데 생기 가득한 좋은 토질로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비석비토(非石非土)이다. 색깔은 동쪽(木)의 기운이 응결된 청색, 서쪽(金)의 기운이 응결된 백색, 북쪽(水)의 기운이 응결된 흑색, 남쪽(火)의 기운이 응결된 적색, 중앙(土)의 기운이 응결

된 황색 등 다섯(목·화·토·금·수) 가지의 오색이 합쳐진 밝은 빛을 띠어 최고의 혈 자리로 간주한다.

이 오색은 오행에 대한 기(氣)의 색이며 오행의 기(氣)가 있는 곳에는 오색 흙이 있고 역(逆)으로 오색 흙이 있는 곳에는 오행의 기(氣)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중(曠中) 내부에는 항상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야 생기가 융화되고 여기서 목렴(木廩), 화렴(火廩), 수렴(水廩), 풍렴(風廩) 등의 각종 피해가 없어야 시신이 안정되고 세월이 지나 자연 소진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땅속에 시신을 묻어야 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사체(死體)에 수분이 들어있는 근육과 내장 기관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살점의 조직이 삭아 없어지고 유골은 노란 황갈색으로 윤기를 머금은 채 100년에서 150년 정도 사이에 천천히 삭아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장소를 풍수에서 찾는 좋은 묘 터로서 최고의 음택 지(묘 터)로 친다. 즉 물은 물로 돌아가고 뼈와 같은 고형물질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풍수적으로 보아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명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명당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조선조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명당 터는 거의 다 찾아 썼다.

풍수학에서 말하는 좋은 조건의 양택과 음택을 선택해 사는 사람은 천부적인 복을 타고났거나 적선을 한 사람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좋은 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양택과 음택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준다고 한다.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봉안당이 생기면서 음택풍수는 설 자리가 좁아졌지만, 양택풍수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양택풍수의 이론을 숙지하여 주택이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풍수학은 미신이 아니라 통계학이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조상의 산소가 객관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하고, 양택 집터가 좋은 곳이라면, 긍정적 사고가 발동하게 되며 긍정적 사고는 인간을 성공하게 한다.

기고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주민과 경찰이 함께해야 할 때

안기오 장흥경찰서 경무계장

한 해 평균 농산물 절도 피해가 전국적으로 500여건에 이르고 있어 수확철 농산물 절도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농민들이 피땀으로 가꿔 수확해 놓은 농산물을 절취 해 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농산물을 지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먼저 개인이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진 곳에 수확해 놓은 농산물을 놔 두거나 잠금장치 없는 보관창고에 두지 않아야 한다.

사회 환경 개선으로는 마을 진입로 및 골목 등에 방범cctv 확충이 필요하



며 고장으로 방치된 cctv는 수리하여 마을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또한 외지차량 및 낯선 사람 방문 시 차량번호를 사진촬영해 두거나 방문목적은 묻는 것도 절도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 발생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 하여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즉각적인 대처로 절도범이 멀리 도주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여 빠르게 검거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한 농산물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협력치안이 필요할 것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만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